

‘성희롱 파문 여고’ 몇년 전에도 성추문 ‘쉬쉬’

광주지역 한 여고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몇년 전에도 해당학교에서 성비위 문제가 불거져 교직원들이 전보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의 교사들을 관찰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알리지 않고, 다른 학교로 조용히 전보시켜 의도적 은폐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성희롱 파문도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남자 교사 2명이 연루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A교사는 3학년 여교생을 하굣길에 승용차에 태워 신체를 만지는 등

가해 의심교사 2명 타 학교로 조용히 전보 조치 학교 ‘안일 대응’ 성희롱 사건 키워 비난 자초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B교사도 이 학교다른 여교생을 영화관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교 측은 두 교사의 성비위 사실이 학내에 퍼지자 두 교사와 피해 학생들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쳐 그해 5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를 경찰이나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매듭지어 두는 게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해 3월 부임한 시

교육청의 두 번째 파견 교장의 요구에 따라 재단 산하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이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성비위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은폐돼 이번과 같은 교사들의 성추행 및 성희롱이 만연하게 됐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학교의 안일한 대응 등이 성희롱 사건을 키워, 비난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 가해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믿기 어려운 성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몸매가 그게 뭐냐 다 망가졌다”거나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등의 발언이 속출했다.

언어폭력 피해도 확인됐다. “돼지 같은 년”, “야 이 미친년야”라고 부르거나 “설거지나 하고 살아라” 등 막말이 쏟아졌다.

특히, 신체적 접촉으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학생도 있었다.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 끈을 만지고, 허리와 엉덩이를 톡톡 치거나 쓰다듬는 교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되지 않은 성추행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고 수위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성추행 부분을 매우 조심

스럽게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 학교에서 이같은 성희롱·성추행을 저지른 교사는 현재까지 11명으로 알려졌다. 간접 피해까지 합하면 가해 교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가해 교사로 지목된 교사 11명에 대해 분리조치 하도록 학교에 요청했다. 또, 관련자 전원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도 할 방침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성비위 교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 비슷한 행태를 보였던 다른 교사들도 죄책감이나 위기의식 없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 24~37	흑산도	☁ 26~32
담양	☁ 24~37	구례	☁ 24~37
화순	☁ 25~37	곡성	☁ 23~37
영광	☁ 25~36	완도	☁ 26~34
함평	☁ 26~37	강진	☁ 25~35
무안	☁ 25~36	장흥	☁ 24~35
영암	☁ 24~36	해남	☁ 24~35
진도	☁ 25~34	고흥	☁ 24~34
신안	☁ 26~35	보성	☁ 23~34

일출 05:41 일몰 19:36
월출 22:14 월몰 09:24

목포	만조 04:55 17:02 간조 10:07 22:11	여수	만조 11:35 23:56 간조 05:30 17:28
----	----------------------------------	----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광주 폭염일수 ‘20일째’

연속기록 기준 최장 경신

광주에서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치솟는 날이 20일째 연속으로 이어져, 역대 최장일수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31일 광주의 폭염일수(낮 최고기온 33도 이상)가 지난 12일부터 20일째 이어져 연속기록 기준 최장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역대 두 번째 기록은 19일 연속 폭염일수가 이어진 지난 1994년이다.

1994년은 폭염일수 연속기록으로 올해 무더위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지만, 누적 폭염일수 기준으로는 당시 7월 한 달 24일을 기록해 올해

20일에 비해 나흘 더 많아 역대 1위를 아직 고수했다.

광주와 나주·담양·화순·함평 등에 발표된 폭염특보는 이날까지 22일째 이어져 기상관측 이래 최장 발표 기간을 또다시 하루 연장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광주 광산 38.2도를 최고로, 나주 다도 37.1도, 곡성 옥과 36.8도, 함평 월야 36.5도, 장흥 유치 36.3도, 장성 36.1도 등을 기록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255명(사망 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김종찬 기자



가로수도 더위에 ‘혁혁’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날 31일 오후 광주시 동구청 관계자들이 도심 가로변 나무의 고사를 막기 위해 살수차로 물을 주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세버스 1톤 트럭 간 충돌 사고 노인·운전자 등 6명 경상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7분께 영암군 덕진면 한 도로에서 신 모씨(70)가 몰던 1톤 포터 트럭이 박 모씨(67)가 운전하던 45인승 전세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해남에서 광주로 이동하던 전세버스 승객 32명 중 70~80대 노인 5명과 트럭 운전자 신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차선 변경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10대와 몸싸움 중 의식 불명 60대 숨져

10대 청소년과 몸싸움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60대가 결국 숨졌다.

지난달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18)과 몸싸움을 벌인 B씨(63)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지 6일만에 사망했다.

A군과 B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 15분께 서구 동천동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돼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서 B씨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폭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술에 취한 B씨가 욕설을 하고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리를 피했지만 계속 시비를 걸어와 가슴을 한 차례 밀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일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김종찬 기자

폭염 속 가축폐사...사건 사고 잇따라

근로자 숨지고 아파트정전·차단기 과열 화재

연일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거나, 차단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의 가축 폐사는 지난해 비

해 2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1시 32분께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조 모씨(66)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던 조씨는 의식을 잃은 채 콘크리트 데미에 쓰러져 있었고, 동료들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조씨가 열사병이나 탈진 증

세로 쓰러지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동료에게 발견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평소 지병이 없던 조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에 앞서, 화순의 한 아파트에선 차단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4시간여 동안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30일 밤 10시 22분께 화순 근화읍순한 아파트 단지 전체 4개 동 562세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정전은 과열된 기중차단기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한전은 복구반을 투입, 차단기를 교체하고 이날 오전 2시부터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남에서 폐사한 가축은 321농가 55만 1,000여마리로 확인 됐으며 재산피해만 22억 4,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4농가 21만 7,000마리가 폐사한 것과 견주 보면 무려 153%(33만 4,000마리)가 늘어난 수치다. /이나라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운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충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1-632-0323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4633-1790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5617-2605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3622-9898	해남지사 010-8181-2627	

■ 전남매일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